

금강산 관광 사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성규 / 한국은행 춘천지점 기획조사과장

분단의 아픔 45 년만에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의 시작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화해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비록 사업이 착수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작된 이상 끈기와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렵사리 성사된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에 적지 않은 실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측에는 좋은 외화벌이가 될 수 있고, 우리측에는 관광 산업의 발전은 물론 남북 경제 협력 확대의 계기로 작용될 수가 있다. 본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同사업이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입출항지를 끼고 있는 지역 경제에는 아직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약 2,300억~2,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130억~1,200억 원, 고용 유발 9,100~9,400여 명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유발 70억~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40억~110억 원, 고용 유발 230~640 명으로 국가 경제 전체 효과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여러 남북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작된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현재까지는 경제 여건도 좋지 않고 사업 시행 시기도 초기인 관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업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대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육로 관광까지 실현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은 물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머리말

마

로만 듣던 금강산 관광이 꿈이 아닌 눈 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북한

의 장진항을 향해 동해항에서 힘찬 배고동을 올렸다.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간의 대규모 인적 교류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첫 출항 이후 금년 3월 22일까지 총 70 회 운항에 관광객 수는 4만 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1 회 운항에 평균 600여 명이 승선한 셈이다. 아직까지는 관광객 수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시행 시기가 겨울철 비수기인 데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광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본격적인 관광 시즌인 4월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의 실현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 상호간의 신뢰 회복과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남북간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실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식량 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게는 좋은 외화벌이가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는 관광 산업의 발전은 물론 남북간에 경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관광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강원 경제에는 지역의 소득 증가는 물론 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관광 산업은 단지 소비성 서비스 산업으로 치부되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 산업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면서 외화 가득 효과도 큰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4명은 1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올해부터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 8조 3,000억 원(민자 6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해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50여 개의 중점 특화 관광 사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유사사업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주는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실익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의 의의 및 추진 현황

의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인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햇볕론과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번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민간인들이 북한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금강산은 이제 관광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 화해의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외에 금강산 관광 및 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북 양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에서 볼 때는 금강산 입산료, 출입국 수수료, 항만 사용료 등 입북 관련 비용과 관광객의 선물 용품 구입 등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우리측에도 관광 산업의 진흥은 물론 여러 가지 경험 사업의 확대 예상 등으로 많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효과외에 남북간의 이념적 대립에 따른 갈등 구조의 개선을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진 현황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은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차 방북을 계기로 가시화되면서 9월 25일을 첫 출항일로 잡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무장 공비 시체 발견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남북 관계가 잠시 냉각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7월 말에 현대실무단이 재차 방북하여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 개발을 위한 합영 회사를 설립키로 하면서 상황은 급진전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9월 7일에 동 사업을 남북 경험 사업으로 공식 승인하였다. 그 후에도 금강산 입산료와 수수료 등의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10월 말 정 명예회장의 2차 방북으로 일정이 확정되어 마침내 11월 18일 관광객, 승무원 등 1,250여 명을 실은 '현대금강호'의 출항으로 역사적인 북한 여행길이 트이게 되었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전제 조건

소득 수준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소비 지출 행위는 곧바로 생산 활동으로 연결되어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당해 소비 지출이 지출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소비 지출과 관계 없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즉, 소비 행위의 대체성과 독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비 행태는 소득 계층간, 소비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

히 필수적 소비 지출이 아닌 선택적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소비 지출 대상 상호간에 대체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조사 연구에서는 소비 행위의 대체성 관련 학술 연구 자료가 없음은 물론 분석의 단순화를 기하기 위해 금강산 유람선 관광에 따른 소비 지출을 독립적인 추가 소비 지출로 간주하고, 同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측면으로 나누어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

유람선 관광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은 먼저 유람선 관광 자체 사업 부문과 유람선 관광을 전후하여 지역내 체류 및 관광에 따른 지역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다음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합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추정한다. 그리고 분석의 도구(tool)로는 한국은행에서 편제한 1995년도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상의 유발 계수를 이용하여 부문별 유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유발 효과 추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체 방안

1)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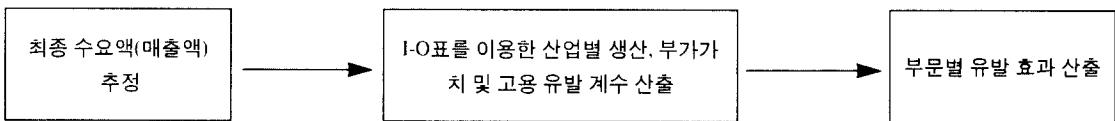
○ 부문별 소비 지출(업종별 매출액) 관련 기초 자료 부재

유람선 관광 부문의 생산·고용 등의 유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음식숙박비 등 관광 관련 매출액이나 소비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별 기초 통계가 부족하며, 또한 유람선 관광을 전후해 지역 내에 머무르면서 경비 지출로 일어나는 지역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의 관광 관련 업종인 음식숙박, 도소매, 운수 보관업 등의 매출 통계가 필요하나 同자료 역시 없다.

○ 산업연관표를 통해 유람선 관광 사업과 직결되는 유발 계수 산출이 곤란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최종 수요에 의한 유발 계수는 당해 산업의 최종 수요가 1단위 늘어날 때 이로 인해 각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및 고용이 어느 정도 유발되는가를

<그림> 부문별 유발 효과 추정 방법



나타내는 산업 파급 계수이다.

본 고에서의 분석 대상인 유람선 관광 사업은 일반적인 관광과는 약간 다른 특수한 형태의 관광 사업이다. 예를 들면,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과 같은 건축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건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연쇄적으로 유발시킨다. 그러나 유람선 관광은 외국에서 배를 용선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객이 늘어난다 해도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추가로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건조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볼 때, 산업연관표 상의 관광 관련 업종의 유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유발 효과를 추정할 경우에도 精度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유람선 관광과 직결되는 업종의 유발 계수를 별도로 산출해낼 수도 없다.

○ 지역 유발 효과 계측을 위한 지역 산업 연관표 부재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이 여행을 전후해 지역 내에 머무르면서 소비 지출하는 품목은 물론 역외 생산품도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따라서 지역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추정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투입 구조에 기초한 지역 산업연관표가 있으면 더욱 유용하나 同자료가 없다.

2) 대체 방안

○ 유람선 관광 사업 부문의 추정

업종별 기초 통계가 있을 시에는 업종별로 유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추정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기초 통계가 부족한 데다 유람선 관광과 직결되는 유발 계수의 별도 산출이 어렵다. 따라서 同부문에 대한 추정은 이와 같은 기초 자료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료 입수가 가능한 도소매업(선상 매출)은 업종 계수를 적용하고 음식점과 운수 보관업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유발 계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 지역 경제 부문의 추정

지역 경제 부문에 대한 추정은 관광 관련 매출 통계가 전혀 없어 우선 매출액의 추정이 필요하였다. 매출액 추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하나는 '1997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 결과' 자료 상의 내국인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

른 하나는 '현지 업체의 표본 조사'를 통한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유발 계수 적용은 먼저 '1인당 평균 여행 경비' 이용시에는 업종별 경비 지출 내역의 구분이 안되므로, 음식숙박·운수 보관·도소매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유발 계수를 산출하여 이용하고, 다음으로 '현지 업체 표본 조사 결과'를 이용할 시에는 업종별로 유발 계수를 각각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매출액 추정은 추정 상의 오차들을 고려하여 점 추정이 아닌 구간(범위) 추정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발 효과 산출을 위한 부문별 추정 방법

1) 유람선 관광 사업 부문

○ 관광객 수

사업 1차년도인 1998년에는 사업 시행 시기가 겨울철이고 경제 여건이 나빠 유람선 관광객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인 1999년에는 유람선 관광

이 본격화되는 데다 경제 여건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현대측이 추산한 24만 5,000 명을 연간 관광객 수로 이용하였다. 同추정치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승선 100%, 1~5월 2 척, 6~12월 4 척 운항시)의 86%로서 겨울철 비수기의 관광객 수 감소 등을 고려한 수치로 파악된다.

○ 유람선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 비용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유람선 관광 총요금에서 북한과 해외로 지급되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입북료(출입국 수수료, 금강산 입장료, 장전항 사용료, 환경보전·화재 예방 시설 관리비, 제세 공과금 등)와 용선료는 제외하고 선상 매출액은 더하여 산출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1인당 평균 여행 비용은 미화로 483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57만 9,600 원(1,200 원/美 달러)이다.

〈표 1〉 1인당 평균 여행 비용 계산 방법

유발 효과 산출을 위한 1인당 평균 여행 비용	(유람선 관광 1인당 평균 요금) - (입북료) - (용선료) + (선상 매출)
계산 방법	816 美 달러 - 236 美 달러 - 115 美 달러 + 18 美 달러 = 483 美 달러

주: 1) 현대그룹의 1999년도 유람선 관광 사업 계획 상의 1인당 평균 요금·입북료·용선료임.
2) 현대그룹이 1998년 11월 강원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상의 1인당 선상 매출 규모 추정액임.

2) 유람선 관광 전후 역내 체류에 따른 지역 효과 부문

○ 추정 의 전제

유람선 관광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체류하는 관광객은 금강산 관광객외에 동반 가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동반 가족 수를 추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1998년 11~12월중 출영 등과 관련하여 동반된 가족은 노령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동반 가족 수는 관광객 추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유람선 관광의 추가 관광 비용(역내 체류시 지출 비용)

•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를 이용하는 방법

한국관광공사의 '1997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 결과' 표 상의 내국인 1인당 일평균 국내 관광 비용은 숙박객의 경우 1박당 3만 8,000 원, 무숙박의 경우 2만 5,300 원으로 조사된 통계치를 인용하였다.

• 현지 업소 가격 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보조적인 추정을 위해 현지 음식 숙박 업

소 및 선물 용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입수된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숙박 비율 및 숙박일 수 산정

• 숙박 비율

현지 숙박 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1998년 11~12월중 유람선 관광객의 숙박 비율은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처럼 숙박 비율이 낮은 것은 입출항 시간이 출항은 오후 5시, 입항은 오전 6시인 관계로 일부 장거리 지방 여행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출발 당일에 관광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동해시에 도착하고, 입항 당일에 귀향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 중에는 관광 일정이 다양화되고 역내 관광 상품과의 연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숙박 비율을 10~30%로 가정하였다.

• 숙박 일정

현재 유람선 관광 일정이 장기인 관계로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을 전후해 다시 지역에 머무르면서 역내 관광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내 숙박일 수는 입출항 전후를 기해 1~2일로 가정하였다.

파급 효과 추정

2) 유람선 관광 전후 역내 체류 및 관광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B)

1) 유람선 관광 자체 파급 효과(A)

앞에서 설명한 제반 전제 조건에 의해 추정된 1999년중 유람선 관광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약 1,42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2,19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9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80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1인당 평균 관광 경비와 현지 업소 가격 조사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추산된 지역 효과 추정치는 추정 범위(최소~최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2〉 유람선 관광 자체 파급 효과

(단위: 억 원, 명)

유람선 관광 매출액	유발 효과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 유발 인원
1,420	2,190	1,090	8,800

〈표 3〉 연간 매출액 계산 방법 및 결과

계산 방법	[연 관광객 수 × (1인당 유람선 관광 평균 요금 - 입복료 - 용선료) × 적용 환율] + [연 관광객 수 × 1인당 선상 지출비용 × 적용 환율]
계산 결과	[245,000 명 × (816 美 달러 - 236 美 달러 - 115 美 달러) × 1,200 원] + [245,000 명 × 18 美 달러 × 1,200 원] = 136,710,000,000 원 + 5,292,000,000 원 = 142,002,000,000 원

〈표 4〉 유발 효과 계산 방법 및 결과

계산 방법	[(1인당 유람선 관광 평균 요금 - 입복료 - 용선료)를 기초로 한 연간 매출액 × (음식숙박 및 운수 보관업을 1개 산업으로 통합한 유발 계수)] + [1인당 선상 지출비용을 기초로 한 연간 매출액 × 도소매업의 유발 계수]
계산 결과	· 생산 유발액: [136,710,000,000 원 × (1.542375)] + [5,292,000,000 원 × (1.539609)] = 210,858,000,000 원 + 8,147,000,000 원 ≒ ₩219,005,000,000 원 · 부가가치 유발액: [136,710,000,000 원 × (0.761063)] + [5,292,000,000 원 × (0.938379)] = 104,044,000,000 원 + 4,966,000,000 원 ≒ ₩109,010,000,000 원 · 고용 유발 인원: [136,710 명 × (0.063402)] + [5,292 명 × (0.025506)] = 8,665 명 + 135 명 ≒ 8,800 명

주: 1) 유발 계수는 1995년 산업연관표의 통합 대분류(28 부문) 상의 음식 숙박업 및 운수 보관업을 1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산출한 유발 계수와 도소매업의 유발 계수임.

2) 고용 유발 계수는 매출액이 백만 원 증가할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증가하는 고용 인원을 의미함.

○ 1인당 평균 관광 경비 이용 추정(Case I)

한국관광공사의 '국민 여행 실태 조사'에서 산출된 국민 1인당 일평균 국내 관광 비용을 이용한 경우, 지역 매출액은 대략 65억~99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100억~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6억~85억 원, 고용 유발은 274~417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현지 업소 가격 조사를 통한 추정 (Case II)

현지 음식 숙박 업소에 대한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입수된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 지역 매출액은 45억~124억 원이며, 생산 유발액은 73억~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1억~112억 원, 고용 유발은 229~637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표 5〉 유람선 관광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1인당 평균 관광 경비 이용 추정)

(단위: 억 원, 명)

지역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액	유발 효과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 유발 인원
65~99	100~153	56~85	274~417

〈표 6〉 매출액 계산 방법 및 결과

계산 방법	$\begin{aligned} & \text{연 관광객 수} \times [(1\text{인당 당일 관광 비용} \times 90\%)+[1\text{인당 숙박 관광 비용} \times 10\%]] \\ & \text{연 관광객 수} \times [(1\text{인당 당일 관광 비용} \times 90\%)+[1\text{인당 숙박 관광 비용} \times 10\% \times 2 \text{ 일}]] \\ & \text{연 관광객 수} \times [(1\text{인당 당일 관광 비용} \times 70\%)+[1\text{인당 숙박 관광 비용} \times 30\%]] \\ & \text{연 관광객 수} \times [(1\text{인당 당일 관광 비용} \times 70\%)+[1\text{인당 숙박 관광 비용} \times 30\% \times 2 \text{ 일}]] \end{aligned}$
계산 결과	$\begin{aligned} & 245,000 \text{ 명} \times [(25,300 \text{ 원} \times 90\%)+[38,000 \text{ 원} \times 10\%]] = 6,509,650,000 \text{ 원(최소)} \\ & 245,000 \text{ 명} \times [(25,300 \text{ 원} \times 90\%)+[38,000 \text{ 원} \times 10\% \times 2 \text{ 일}]] = 7,440,650,000 \text{ 원} \\ & 245,000 \text{ 명} \times [(25,300 \text{ 원} \times 70\%)+[38,000 \text{ 원} \times 30\%]] = 7,131,950,000 \text{ 원} \\ & 245,000 \text{ 명} \times [(25,300 \text{ 원} \times 70\%)+[38,000 \text{ 원} \times 30\% \times 2 \text{ 일}]] = 9,924,950,000 \text{ 원(최대)} \end{aligned}$

주: 관광 비용은 한국관광공사의 '1997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 결과 1인당 1 일 평균 당일 관광 비용 및 숙박 관광 비용임.

〈표 7〉 유발 효과 계산 방법 및 계산 결과

계산 방법	지역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액 ×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계수)
계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유발액 : (6,509,650,000~9,924,950,000 원) × (1.540849) ≃ 10,030,000,000~15,292,000,000 원 · 부가가치 유발액 : (6,509,650,000~9,924,950,000 원) × (0.858860) ≃ 5,590,000,000~8,524,000,000 원 · 고용 유발 인원 : (6,509~9,924 명) × (0.0420191) ≃ 274~417 명

주: 유발 계수는 1995년 산업 연관표의 통합 대분류(28 부문) 상의 음식 숙박업·운수 보관업을 1 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산출한 유발 계수임.

3) 유람선 관광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A+B)

생산 유발액은 2,263억~2,39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131억~1,202억 원, 고용 유발은 9,029~9,347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유람선 관광 자체 부문과 지역 경제 부문의 효과를 합한 국가 경제 전체 파급 효과는

〈표 8〉 유람선 관광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현지 업소 가격 조사 이용 추정)

(단위: 억 원, 명)

관련 업종	업종별 매출액 ¹⁾	유발 효과 ²⁾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 유발 인원
숙박업	7~44	12~71	7~40	40~240
음식업 ³⁾	15~31	26~53	13~27	142~296
농림수산업 ⁴⁾	10~20	16~32	9~18	14~28
도소매업 ⁵⁾	12~25	19~38	11~23	31~62
운수 보관업 ⁶⁾	1~4	1~7	1~3	2~10
합계	45~124	73~200	41~112	229~637

- 주: 1) 매출액 및 유발 효과의 최소치는 관광객의 숙박 비율을 10%로 가정한 경우, 최대치는 관광객의 숙박 비율이 30%이고 숙박일을 2 일로 가정한 경우임.
 2) 업종별 유발 효과는 업종별 매출액에 업종별 생산·부가가치·유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3) 식당의 매출액(재료비 포함)을 음식업의 매출로 간주하였으며, 매출액은 현지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1 식당 평균 식사 비용에 당일 관광객은 여행 기간중 출발일에 1 회, 숙박 관광객은 1 일 3 회 식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4) 유람선내 선식 납품액을 농림수산업의 매출로 간주함.
 5) 지역 특산물 판매액(매입 원가 및 운임을 포함)을 도소매업의 매출로 간주함.
 6) 관광객의 도내 대중 교통 수단 이용에 따른 지출을 운수 보관업의 매출로 간주함.
 7) 업종별 매출액 및 유발 효과의 계산 방법 및 결과는 한국은행 춘천지점(1999.2), 「금강산 관광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참조.

〈표 9〉 유람선 관광의 국가 경제 전체 파급 효과

(단위: 억 원, 명)

	유람선 관광 자체 파급 효과(A)	유람선 관광 전후 여내 체류 및 관광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B)		국가 경제 전체 파급 효과 (A)+(B)	
		Case I	Case II	Case I ¹⁾	Case II ²⁾
생산 유발액	2,190	100~153	73~200	2,290~2,343	2,263~2,390
부가가치 유발액	1,090	56~85	41~112	1,146~1,175	1,131~1,202
고용 유발 인원	8,800	274~417	229~637	9,074~9,217	9,029~9,347

- 주: 1) 1인당 평균 관광 비용을 이용한 추정임.
 2) 현지 업소 가격 조사를 이용한 추정임.

추정 결과

1) 국가 경제 부문

금년 한 해 동안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은 대략적으로 2,300억~2,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130억~1,200억 원, 고용 유발은 9,100~9,4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 유발액을 1997년 기준 경상 국내총생산(경상 GDP) 구성 항목 가운데 관광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68조 8,700억 원)와 비교해볼 때 약 0.17%에 해당되며, 고용 유발 인원은 1995년 기준 산업연관표 상의 관련 업종 총취업자 수의 0.20%에 해당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동사업이 본격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외화 획득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 경제 부문

금강산 관광 전후를 기해 지역내 체류 및 관광에 따른 지역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은 대략 70억~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40억~110억 원, 고용 유발은 230~640 명으로 국가 경제 전체 효과의 3~9%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액은 1996년

기준 도내 총생산(경상 GRDP) 10조 8,461억 원의 0.04~0.10%에 불과하여, 동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단일 사업으로는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동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본 연구에서 추정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입출항 시간이나 장기간의 여행 일정으로는 입출항지인 동해안 지역이 관광 체류 지역이 아니라 단순 경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금강산에 대한 관광 선호로 설악권의 관광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설악권 관광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 생산품의 선상납품 증대 및 입출항 시간의 변경 등을 통하여 지역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은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종합 개발 사업

의 제1단계 사업으로 올해가 본격적인 관광 사업의 제1차년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금년 한 해의 사업 추진 결과가 현대 입장에서는 향후 금강산 관광 종합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측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강원도 지역 입장에서도 올 한 해 동안에 同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가 지향하는 21세기 관광 산업 및 통일 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감안해볼 경우, 同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 제고 방안으로서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을 확보하여 외화 가득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경비 지출은 모두가 곧바로 국부의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화나 국민 정서,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의 관광객을 주 목표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의 항구를 입출항지로 하여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외 홍보 강화에도 주력해야 될 것이다.

둘째, 내국인 관광객의 소득 수준이나 여행 시기 선택 등을 고려하여 단기 일정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4박 5일(동절기 3박 4일)의 장기 일정은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여행 시기도 휴가기에 집중되는 등 사계절 고객 확보에 문제가 있게 된다.

셋째, 북한측과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북한에 지급하는 입북 관련 비용을 줄여 여행 단가를 낮추어야 더 많은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현재 해외에서 용선하여 쓰고 있는 유람선을 국내 건조의 배로 대체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육로 관광 루트를 개설해야 경제적 효과를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은 곧 국가 발전이 된다. 따라서 同사업이 지역 관광 상품과의 연계 등으로 지역 사회의 실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92**